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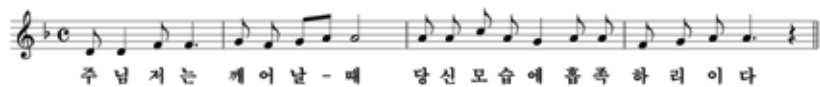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7-38)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세바스티앙 부르동, 1642-1645년,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제1독서] 2마카 7,1-2,9-14

[화답송] 시편 17(16),1,4ㄷ과 5-6,8과 15
(© 15년 참조)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견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제2독서] 2테살 2,16-3,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루카 20,27-3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 봉헌성가: [340] 봉헌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151] 주여 임하소서
- 파견성가: [458] 주의 말씀 듣고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때에 ²⁷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²⁸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이하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²⁹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말이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³⁰ 그래서 둘째가, ³¹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³²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³³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³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³⁵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³⁶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³⁷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³⁸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묵상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누군가 당신에게 함께 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
간단한 방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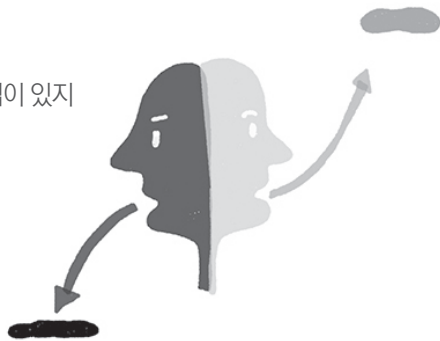
너에게 과거를 묻는지

너에게 미래를 묻는지

함께하는 것은

내일을 함께하는 것이지

지난 일을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



“그분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 20,38)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묵상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복음에 담겨 있는 매우 독특한 이 표현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지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존재라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에 관하여 자주 논쟁을 벌이고는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두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경의 구절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은 하느님 앞에서 당연히 살아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지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그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계속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영혼이 종말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일곱 형제와 어머니처럼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마저 내어놓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이는 결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위령 성월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선종(善終)하신 본당 교우를 위해 신자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바치고 장례미사를 하는 모습을 본 새 영세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신부님,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잘잘못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연옥, 또는 지옥에 가는 것 아닌가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도움이 되나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고백한다.

여기에서 통공(通: 통할 통, 功: 공로 공)은 ‘공로를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것’ 을 뜻하는데, ‘성인의 통공’ 에 대해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는 신자들 - 이미 천상 고향에 이른 사람들, 연옥에서 속죄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지상에서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 -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의 유대와 모든 선의 풍부한 나눔이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5항).

즉 성인의 통공은 천국에 있는 이들과 연옥에 있는 이들, 그리고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서로서로 그 공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로’ 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공로는 “물질적인 부요와 같은 어떤 재물의 총화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한하고 무궁한 가치가 있는 보화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76항).



〈바오로딸 콘텐츠〉

또한 이 공로에는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聖人)들의 기도와 선업이 포함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7항 참조). 아울러, 죽어서 연옥에 있든, 현재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며 드리는 기도와 선행이 바로 각자의 공로가 된다. 바로 이 공로를 서로서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연옥에서 통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죄의 벌에서 더 일찍,

더 효과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5항 참조).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와 기도 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마카베오기 하권은 “[유다 마카베오기]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2마카 12,45)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기 하권을 정경(正經)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기에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 내용은 성경에 없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이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했던 신앙과 사랑의 친교는 죽음을 넘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끊임없는 서로의 사랑과 영적인 보화의 나눔, 이것이 다름 아닌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이다. <catholic.or.kr>

“그리스도인, 하나님 품 안에서 참행복 살아야”

프란치스코 교황, 로마 프리실라 카타콤에서 위령의 날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2일 로마에 있는 프리실라 카타콤에서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를 주례했다. 교황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의인들의 영혼은 상처 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욕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프리실라 카타콤은 초기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카타콤 중 하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묻혀 ‘지하 납골당의 여왕’이라는 뜻으로 ‘레지나 카타콤’으로 불린다. 이 카타콤은 도굴을 막기 위해 입구가 봉쇄돼 수백년 동안 잊혀졌다. 16세기에 다시 발견했을 때에도 이미 많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사라진 상태였다. 교황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서 미사를 봉헌했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과 현재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정체성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황은 “또한 오늘날 초대 교회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참행복’이 묻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참행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서 “그 어떤 신심단체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분증은 바로 참행복을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의 카타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묘지를 방문해 그곳에 묻혀있는 전임교황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가톨릭신문>

Pilgrimage to the Guadalupe

과달루페 성지 순례 중 받은 은혜

- ME 봉사자 김 요안 비안네, 김 마리아

38명의 본당 신자들이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떠난 과달루페 성지순례(ME 주관) 동안 성모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3박 4일의 짧은 여정이었으나 마치 오랜 순례에서 받은 듯한, 감격을 주신 주님과 빛 속에서도 아무 탈없이 순례를 마치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4일 밤 늦게 도착하여 잠시 눈을 붙이고 25일 7시에 호텔을 출발, "천사의 도시" 푸에블라로 향하여 아름다운 성 도밍고 성당에서 우리말로 뜻 깊은 미사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출몰라로 이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피라미드 위에 지은 '치유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 도착할 즈음 반갑지 않은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순례단 모두 아랑곳 하지않고 54미터의 높은 언덕 위에 지은 성당에 도보로 올라 조배드렸습니다. 폭우속에서 순례에 참여한 박 토마스 형제의 휠체어를 백 신부님이 미시면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올라 가셨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도 자원하였으나 신부님은 '휠체어 운전은 내가 제일 잘 한다' 하시며 손을 놓지 않으셨지요. 신부님은 모두에게 깊은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님 동생도 사제인데 사고로 부상을 크게 입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26일 오전 테오티우아칸 지역으로 이동하여 높이 66미터 높이의 해와 달의 신전 정상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몇 분을 빼고 우리들은 240개의 계단을 밟으며 정상에 올라 찬란했던 고대 문명의 자취를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순례의 정점인 과달루페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스페인어로 올리는 대성당 미사에 참가하도록 일정이 되어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우리말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받아 대성당 안의 경당에서 감격적인 미사를 드렸습니다. 본 성당에서 스페인어로 드리는 미사가 크게 들리는데도 조금도 분심이 되지 않았고 주님과 성모님의 은혜가 가슴에 벅차 오르는 느낌을 체험하면서 봉헌한 미사였습니다.

26일 저녁에는 세계 ME 본부에서 10월 27일로 정한 사제의 날을 미리 기념하면서 백 안드레아 신부님을 위해 순례자들이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사제의 마음"을 합창으로 시작하여 재치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노래와 춤이 함께 했고, 축사 후 "나의 살던 고향은"을 합창하며 세계 사제의 날 기념 축하를 드렸습니다. 순례 기간 모두를 위해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27일 주님과 성모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과달루페 대성당 2층 경당에서 미사 후 본 성당을 아래로 바라보며



◀ 폭우 속 휠체어를 치유 성모 성당까지 밀고 가시는 신부님



▲ 해와 달 신전 정상에 오른 후



◀ 66미터 높이 있는 해와 달 신전 정상까지 오르는 순례단



◀ 성 도밍고 성당에서 미사드린 후

하상한국학교

'한국의 날' 행사



하상 한국학교는 지난 10월 26일(토) '한국의 날' 행사를 갖고 정체성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체 학생 프로젝트로 국보 1호인 '남대문(송례문)' 꾸미기를 기획하여 학급 수대로 나누어 반마다 탈, 태극문양, 한국 전통문양, 한글 해례본, 딱지접기 등 많은 부분을 꾸며 콜라주 형식으로 남대문을 완성하였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동 제작에 참여하여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태극기의 의미와 한글의 특징 등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송편 만들기 및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몸으로 말해요', '이구동성' 등 꼭지별로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고 강강술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하상 한국학교는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 한국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Recycle(재활용품) 수거 안내



- 종이와 플라스틱 물병은 반드시 비운 후에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 일반 쓰레기는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거함 위치 : 친교실, 성당 현관, 하상관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0, 2019

What will make us happy?



<오마리아 주일복음/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some men ask Jesus about people being married when they are in Heaven. Jesus tells them that in Heaven people are like angels because they can't die anymore, so they can't be married.

When we are small, there are things that we like to do, like playing with toys, that we won't like as much when we get bigger. As we get older, different things make us happy, but when we get to Heaven it will be something even better that we will want. Do you know what that is? It's God! We will realize that what make us the very happiest is not toys or friends or a husband or wife, but God Himself.

Have you ever had something that you liked and then later you didn't care about it very much? That's the way things go in this life, because **everything is only temporary. When we get to Heaven being happy with God will last forever!** <<https://www.thekidsbulletin.com>>

HEAVEN Fill in the blanks

What did Jesus say to the men in today's Gospel who did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in the list, and use the letters in squares to fill in the blanks at the bottom.

1. Jesus rose so that we could _ _ _ _ again after we die.
2. God will give us new _ _ _ _ _ _ in the resurrection.
3. Then we will be in _ _ _ _ _ _.
4. We will see God after we _ _.
5. Then we will _ _ _ _ sin again.
6. We will be happy forever with _ _ _.

WORD LIST

NEVER
HEAVEN
GOD
BODIES
DIE
LIVE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God of the ;
 1 2 3 4 5 6
for all live to him.”



THE ST. LUCY FOOD PROJECT



“FEEDING THE HUNGRY, NOURISHING THE SOUL”

Catholic Charities' St. Lucy Food Project is our way of addressing the problem of hunger – or “food insecurity” – within our Diocese. This program offers an opportunity to live out your faith by directly serving the hungry. As Christ said: “Amen, I say to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least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 25:40).

Almost a quarter of a million people in the Diocese of Arlington are “food insecure,” meaning they do not know where their next meal is coming from. St. Lucy Food Project supplies and operates three Catholic Charities pantries that feed the hungry within their communities: Christ House in Alexandria, Leesburg Regional Office, and Loaves and Fishes in Front Royal.

Catholic Charities depends on generous donations from parish and community food drives to supply pantries that feed families throughout our diocese.

(You can find the more information at <https://www.cdda.net/>)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is conducting a food collection drive for the St. Lucy Project.

- WHEN** 10/27(Sun) - 11/23(Sat)
- WHERE** Hasang building lobby/parish hall
- ITEMS** Dried food (pasta, cornbread mix, stuffing mix)
Canned food (vegetables, turkey gravy, soups and stews)

대림특강 1

- 일시: 12월 1일(일) 오후 1시 - 3:30
- 강사: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터 한인성당 주임신부)
- 제목: "로고스와 스토리를 통한 그리스도와 대림의 이해"

대림특강 2

- 일시: 12월 8일(일) 오후 1시 - 3시
- 강사: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 (조지 워싱턴대 박사과정)
- 제목: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

11 청년들을 위한 한글학교 개강

- 일시: 매 주일 오전 11:40 미사 후 (하상관 #107)
- 담당 교사: 송정아 마리아 (703)505-6974

12 성서주일 바오로말 수녀회 도서선교

- 일시: 11월 23일(토) - 11월 24일(일), 미사 후, 성당 로비
- 성경 사전, 성경 묵상집, 성경공부 교재, CD 판매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3 ME 주최 2019년 성탄 파티

- 일시: 12월 8일(일) 오후 12시 - 5시
- 참가비: 1인 \$55(Steak/Fish 선택, 와인 포함)
- 등록: 11월 24일(일), 12월 1일(일) 미사 후 친교실
- 본당 교우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 문의: 김창호 요안 비안네 (703)830-5373

14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5 알링턴 교구 St. Lucy 프로젝트 푸드 드라이브

- 기간: 11월 23일(토) 까지
- 도네이션 장소: 하상관 로비 및 친교실
- 도네이션 품목: 드라이 푸드(파스타, 스테핑 믹스, 콘브레드 믹스 등), 통조림(야채, 터키 그레이비 등)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6 바쁘리치안회 11월 모임

- 일시: 11월 24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 주제: 비신자에게 성모님을 어떻게 알리나
- 대상: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 단체장 회의

- 일시: 11월 10일(일) 오전 11:30 (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11월 10일(일) 오후 1시 (B-3,4)

3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11월 10일(일) 오후 1시 (교무실)

4 죽음 준비 교육

- 일시: 11월 10일(일) 오후 12:10 - 4시 (A-1,2)
- 점심: 10시 미사 후

5 사도회 임원회의

- 일시: 11월 15일(금) 오후 8시 (B-1,2)

6 하상회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30 (B-3,4)

7 안나회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30 (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1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9 2019 - 2020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및 신청: 3학년 이상 학생들, 11월 24일까지
- 매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하상관 로비)
- 문의: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0 시청각 통신 성경 공부 안내 세미나(교육부)

- 일시: 11월 24일(일) 오전 11:30 (A-1,2)
- 내용: 바오로말 시청각통신 성서교육 과정 안내(6년 과정)
- 강사: 홍재마 수녀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11월 10일(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11일(월)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사무실 휴무(Veterans day)
12일(화)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하상관)
13일(수)	성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동정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14일(목)	연중 제3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15일(금)	연중 제32주간	하상 성인학교, 사도 임원회(오후 8시, B-1,2)
16일(토)	연중 제32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11월 17일(일)	연중 제33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스프링필드 구역모임(오전 11:30, B-1,2), 성 요셉 아버지 학교 교육(오후 1시, A-1,2)

추계 대청소

구역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10일(일)에 실시됩니다. 다음은 구역별 담당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 웨어팩스 1: 교실 A-1,2,3,4
애난데일 & 라우든: 교실 B-1,2,3,4
우드브리지: 현관, 화장실
비엔나: 본당(1,2층), 유아실
웨어팩스 2 & 센터빌: 본당 건물(청소 및 낙엽제거)
웨어팩스 3 & 버크: 사제관 주변, 나눔터(청소 및 낙엽제거)
알링턴-폴스 & 프린스윌리엄: 친교실 홀, 바닥, 유리창소
스프링필드: 주임·보좌 신부님 방, 복도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32주간: 지혜 6-9, 필리 2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14일(목) 오후 5:00-6:00
11월 15일(금) 저녁 8:00-9:00
11월 17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교회사 2천년 (2회): 신비로운 영적체험을 위해 지어진 히기아 소피아 성당. 양정우 교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1월 3일(연중 제31주일)

주일헌금	\$9,496.00
교무금	\$11,7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8,340.00
특별헌금	\$274.00
2차헌금	\$2,829.00
합계	\$32,64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온규희(벌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자경(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승(렘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오), 장미례(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베), 안성호(요한), 구분민(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백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렐라), 최용승(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현(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산),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Well Skin Care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